



법조윤리강의

정형근 저

이번 개정판에서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바꾼 부분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의 책임,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변호사의 보수, 변호사의 징계제도, 법관의 직업윤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관련 규정, 외국법자문사법, 변호사의 공익활동, 변호사의 연수에 참여할 의무 등에 관한 쟁점들도 보완하였다. 특히 법조윤리를 법조인의 법률상 직업책임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변호사의 법률과오책임과 그로 인한 징계책임을 강조하였다.



[박영사 간/4.6배판/양장/670면/34,000원]

감정평가·보상법

박군성·도승하 공저

이 책은 감정평가사 시험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저술되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토지수용법, 손실보상법, 가격공시법 및 감정평가업법과 그 기초가 되는 행정법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위한 수험서가 없는 상황에서 “보상법규”라는 수험서와 감정평가행정법이라는 수험서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라는 시험과목을 위한 수험서를 단권화하고자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



[박영사 간/4.6배판/양장/1210면/54,000원]

형법각론(제8판)

박상기 저

형법각론 제7판을 출간한지 3년이 넘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내용상 적지 않은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형식적인 면에서도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였고, 책의 표지도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바꾸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와 함께 그 동안의 많은 제·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최근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학술논문도 관련되는 곳에서 소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박영사 간/4.6배판/양장/772면/40,000원]

현대법학의 이해

문성제 외 공저

2008년 초판을 출판한 이후에 많은 독자 제현들의 관심과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다시 2011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이 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법률 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헌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2월 18일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일부 개정된 법률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기하고 있다.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이어서 재산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법률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 모두 본서에 수용하여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법문사 간/18절판/양장/782면/32,000원]



법학입문

김문현 외 공저

이 책은 이미 초판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법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 집필되었고, 따라서 법전원 제도 시대에 아주 적절한 법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이 쉽고도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 이책의 제3판을 펴낸 지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적지 않은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분야에 따라 집필자를 새롭게 할 필요도 생겼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개정판 준비작업은 이화여대 법전원의 새 원장인 송덕수 교수가 주도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책의 관리는 법전원 원장이 맡는 것으로 정하였다.

[법문사 간/크라운판/양장/668면/26,000원]



비교행정강의

임도빈 저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수년이 지나 출판사에서 개정요청이 온 지도 2년은 된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드디어 개정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지난번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비교행정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제2장을 신설하였다. 둘째,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리나라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박영사 간/크라운판/양장/640면/32,000원]



로스쿨들권법

김학동 저

“로스쿨 민법총칙”을 펴냈던 분들이 이제 두 번째 로스쿨 교재를 발간합니다. 이 교재의 성격과 서술방식은 민법총칙에서와 동일합니다. 민법총칙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자는 로스쿨의 교육 방식을 고려해서 만든 판례 중심의 교재입니다. 즉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민법상의 개념과 제도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적 설명은 다른 본교재에 맡기고 오로지 판례만을 담았습니다. 다만 판례의 내용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각 판례마다 검토사항·기타 쟁점·관련사례 등을 덧붙였습니다.

[박영사 간/크라운판/양장/392면/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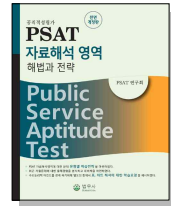


PSAT 자료해석영역- 해법과 전략

PSAT연구회 저

이 책은 PSAT 자료해석영역을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획 집필된 것으로 이번에 개정 3판으로 전면개정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최근 4년의 기출문제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문제들을 영역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자료해석영역은 수리논리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푸는 요령을 갖도록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장에서 표, 차트 해석에 대한 학습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법우사 간/4.6배판/양장/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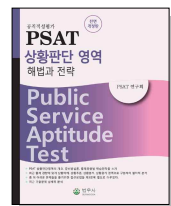


PSAT 상황판단영역- 해법과 전략

PSAT연구회 저

이 책은 PSAT 상황판단영역을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획 집필된 것으로 이번에 개정 3판을 발행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최근 4년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영역과 유형별로 분석하여 위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황이해 상황추리 상황분석 상황평가에 대한 다양한 문제유형을 분석하였고 문제풀이 전략에서는 좀더 깊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법우사 간/4.6배판/양장/30,000원]





법학적성시험(LEET)이 2011년 네 번째로 시행되었다. 아울러 예비시험과 예시문제를 포함한다면 총 7세트의 기출문제가 있다. 이에 해설을 위한 해설이 아니라 수험생의 입장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는 생각과 시험은 네 번밖에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시험문제의 경향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을 연도별로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실제 시험의 경향을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본서를 쓰게 되었다.

[고시계사 간/4.6배판/반양장/13,000원]